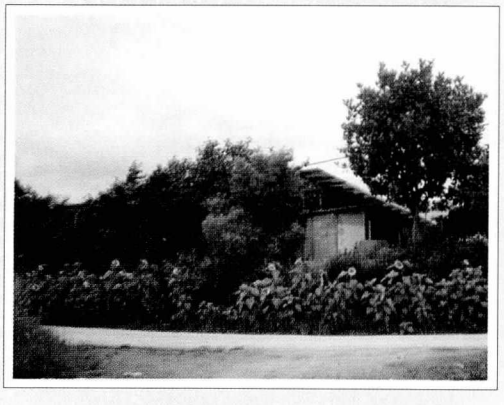
해바라기처럼 항상 웃는 낙농을 만들어보아요!!

목장주변에 해바라기를 심어 모두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곳이 있어 화제이다.

전북 고창 지역이 바로 그곳. 96농가의 고창낙우회 회원들과 육우농가 10여가구들이 주축으로 풍요로운 지역농촌의 모습을 가꾸고 축산의 이미지 개선에 나서고 있다.



우선 도로주변에 위치한 목장들의 퇴비장을 중심으로 외지인들이 느끼는 혐오감을 줄여보자는데 시작한 고창 내 해바라기 심기는 너도나도 전체 목장 둘레까지 심게 되었다. 목장당 약 1kg의 해바라기 씨앗들을 구매해 목장주변 200~300m 정도 석줄로 지그재그 형태로 파종하면 방긋 웃는 목장으로 변신한다. 파종하고 남는 씨앗은 사료작물포 주변에도 심는다. 고창군 내 도로를 지나는 일반인들마다 좋은 인상을 갖고 떠나는 듯 하다며 이 곳 낙농인들은 자랑스러워 한다.

이렇게 심겨진 해바라기는 미관상만 좋은 것이 아니다. 건강열풍 덕에 각광을 받고 있는 해바라기씨유의 인기로, 인근에 위치한 해바라기씨유 가공공장에서는 원료조달을 위해 고창지역 농가들에게 대량으로 구매를 의뢰해오고 있다. 향후 적지않은 부수입원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원료로 kg당 3,000원 정도에 공급할 예정으로, 나중 가공공장으로부터 채유이후 생성되는 부산물인 해바라기박은 TMR원료로 이용된다. 농가들은 그저 파종만 했을 뿐인데 햇빛만으로 키워진 해바라기가 대견하기만 하다.

한편 협회 이사로 재직하면서 고창군낙우회장 겸하여 활동하고 있는 오금열(금성목장)씨는 "이미 고창군의 사례를 보고 전북의 정읍시나, 전남의 영광군 등 타 지역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 농가마다 파종 면적을 더 넓혀 해바라기로 만발한 고창군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낙우회 단위로 남다른 독창성과 보급성이 뛰어난 목장환경 개선활동을 전개하는 고창군의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도 전국에 지속적인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이 확산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